

벼랑 끝 벼락 슛 고생 끝?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왼쪽) 21일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FA컵 64강 재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와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잉글랜드 FA컵 1골 1도움…팀 2-0 승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이 레스터시티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재대결에서 팀의 32강을 견인하며 마음 고생을 덜어냈다.

손흥민은 21일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FA컵 64강 재경기 레스터시티 원정전에 선발출전, 1골1도움을 올리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왼발(죽자근막) 부상 회복 이후 해리 케인과 델리 알리 등의 주전 체제가 굳어지면서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지난달 28일 정규리그 왓퍼드전에서 경기종료 직전 발꿈치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으며 기대를 모았지만 3일 에버턴전에서는 현지매체로부터 팀 내 최저평점을 받는 등 부진했다.

그런 만큼 선발 기회가 돌아오는 겹대회에서 존 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손흥민은 그러나 11일 FA컵 64강 레스터 시티전 첫경기에서 7경기만에 선발출전해 풀타임을 뛰고도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13일 리그 21라운드 레스터 시티전에서는 후반 37분 교체해들어갔지만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고 팀은 골교류게도 손흥민 교체 직후 실점하고 말았다.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와의 FA컵 재대결에서 또다시 선발 기회를 줬고, 손흥민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손흥민은 전반 39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톱 캐롤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골망을 갈랐다. 지난달 28일 정규리그 왓퍼드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한란한 힐킴으로 결승골을 뽑아낸 후 5경기 만에 기록한 골이다.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은 양손 검지로 하늘을 가리키며 담담히 세리머니를 펼쳤다.

계속해 레스터시티 문전을 노리던 손흥민은 후반 21분 켈리프까지 만들어냈다. 페널티지역 전방에서 나세르 샤들리에게 송곳같은 패스를 연결해 2-0으로 달아나는 추가골에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후반 38분 델리 알리와 교체해 나올 때까지 84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존재 가치를 각인시켰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는 우리 팀에 대단한 승리였고, 중요한 승리였다. 팀이 좋은 경기를 펼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소감을 밝혔다.

마우리치오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은 대단한 골을 넣었고, 기쁘다”며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었다”고 흐뭇해했다.

손흥민은 현지 언론으로부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유로스포츠는 손흥민을 최우수 선수로 꼽으며 “공간을 파고들어난 손흥민이 레스터시티 수비를 유린하며 공격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골키퍼를 손살같이 지나친 윙윙한 골이었다”며 “포백 수비를 무너뜨리는 어시스트는 더욱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유로스포츠는 또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9점을 줬다. 9점을 받은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했다. BBC 역시 손흥민을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요르단 밀집수비 뚫고 4강 간다”

신태용호 내일 AFC U-23 챔피언십 격돌

세계 첫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까지 ‘-2’



세계 최초의 8회 연속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달성까지 앞으로 2승이 남았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열리는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23일 오후 10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카타르SC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8강전을 치른다.

리우행 티켓이 주어지는 대회 3위 이내의 성적을 올리려면 앞으로 2승을 더 거둬야 한다.

8강전에선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이후 4강전에서 승리해 결승에 진출하면 승패에 상관없이 올림픽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만약 4강전에서 패배한다면 3-4위전에서 승리해야 한다.

반드시 승리해야 할 상대인 요르단과의

역대 전적은 2승3무로 앞서 있다. 그러나 요르단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요르단은 21일 D조 최종전에서 체력이 뛰어난 호주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고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0-0으로 무승부를 거두고 조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요르단의 수비였다. 8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호주가 파상공세를 펼치지만 요르단의 빗장수비를 뚫지 못했다.

경기장을 찾았던 신태용 감독도 “요르단에 선제골을 허용하면 극단적인 수비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동팀에는 선제골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요르단 수비의 핵은 골키퍼 누레딘 아테야와 수비수 아흐마드 히삼이다. 탄력이 좋은 아테야는 여러 차례 결정적인 위기에서 선방으로 무승부를 이끌었다. 개인기가 뛰어난 히삼은 오버래핑 능력이 뛰어나고 날카로운 패스 능력을 보였다.



신태용호는 체격조건이 뛰어난 요르단의 밀집수비를 깨뜨리려고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신 감독은 8강전 승리의 관건인 선제골을 뽑아내기 위해 힘에서 밀리지 않고 돌파력이 뛰어난 황희찬(잘츠부르크)을 선발 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선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권창훈(수원)과 우즈베키스탄전에서 2골을 기록한 문창진(포항)도 활발한 2선 공격을 위해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수비에선 심상민(서울), 연제민(수원),

송주훈(미토 홀리호크), 이슬찬(전남)의 포백(4-back) 라인을 좀 더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전술이 예상된다.

베스트플레이어를 가동해 선제골만 넣는다면 요르단도 극단적인 수비전술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게 신 감독의 분석이다.

신 감독은 “요르단의 신체조건이 좋지 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파악했다. 이미 요르단의 수비에 대한 공략법이 머리에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광주FC 시즌권 6만원…70% 할인

홈 25경기…청소년권 4만원

6만원으로 프로축구 광주 FC의 홈 25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광주 FC가 사무국(문의 062-373-7733)과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2016시즌권을 판매하고 있다.

시즌권 구매자는 올 시즌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홈경기(정규리그·FA컵)를 관람할 수 있다. 성인권은 6만원으로 70% 할인된 금액에 25회 관람 혜택이 주어진다. 청소년권은 4만원으로 73% 할인이 적용됐다. 단일 경기 관람권의 가격은 성인 8000원, 청소년 6000원이다.

시즌권은 총 25회 차감방식으로 운영된다. 동반자도 따로 구매하지 않고 시즌권에서 차감해 입장할 수 있다. 잔여횟수는 구단 홈페이지(http://www.gwangju-fc.com/tick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즌권 구매자에게는 광주 FC 싸인볼이 기념품으로 주어진다. 또 선수단 에스코트, 페널티킥 등 홈경기 이벤트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홈 전 경기 관람 고객에게는 시즌 종료 후 별도의 기념품이 증정 된다.

한편 광주는 시즌권 판매와 프로축구 활성화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즌권 구매자가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다음 구매자 두 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김여울기자 wool@

월드컵 최종예선 가는 슈틸리케호

아시안컵 본선 자동 진출 확정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할 슈틸리케호가 2019 아시안컵 본선 진출도 확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 예선이 통합돼 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하면 아시안컵 본선에 자동으로 진출한다”며 “슈틸리케호가 남은 예선 2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 1위를 확정하고 최종예선 진출권을 얻어 2019년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도 함께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치러지는 아시안컵 본선에 직행하게 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해 4월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 예선을 통합했다. 그러면서 아시안컵 본선 진출국도 기존 16개 팀에서 24개 팀으로 늘었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12개 팀은 2019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까지 얻도록

규정을 바꿨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 조별리그 G조에서 6전 승을 거둬 승점 18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해 10월 쿠웨이트의 체육 관련 법률이 정부의 체육단체 행정 개입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예정이었던 쿠웨이트-미얀마의 조별리그 G조 6차전이 열리지 못했고, FIFA는 쿠웨이트의 0-3 몰수패를 선언했다.

G조 2위를 달렸던 쿠웨이트(승점 10)는 조별리그 2경기를 남기고 한국과 승점 차가 8점으로 벌어져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됐다. 이로써 한국은 G조 1위를 확정하고 최종예선 진출권과 2019 아시안컵 진출권을 모두 차지했다.

/연합뉴스